

#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보고회 개최

- 농진청, 자연순환농업 연구개발 로드맵 준비 막바지
- 농진청, 내년부터 5년간 1백억 투입

홍 보 부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보고회가 지난 11월 14일 농촌진흥청 제3회의실에서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및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이재용 축산경영과장 등 농림부, 대한양돈협회, 농협중앙회,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인식 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농진청이 마련한 가축분뇨의 고효율·고품질 자원화 연구현황 및 추진방향, 가축분뇨 시용에 따른 토양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연구현황 및 추진방향, 가축분뇨 퇴액비의 작물재배 효과 및 적정시용 방안 연구현황 및 추진방향, 자연순환농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 기술지도 방향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4개분야 중장기('07~'11년까지 5년간) 연구개발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 ◎ 기존 분뇨처리 방법 개선 연구 선행 되야

사동민 충북대학교수는 기존 분뇨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연구가 선행 처리되어

야 한다고 했으며,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은 돼지 등 분뇨에 대한 배출원 단위가 재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액비화는 고농축과 저농축이 있는데 성상에 따라 시비처방서를 변경해야 하며, 슬러리는 수분이 95%로 양질의 분뇨 원료 확보가 우선이므로 양질의 퇴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축사 설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돈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축분 해양배출 중단에 맞춰 농가 적 용할 수 있어야

오인환 건국대 교수는 발표된 연구 기간이 2011년에 맞춰져 있어 양돈농가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연구기간을 단축해야 하며, 결과가 도출된 것은 농가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농촌진흥청 김인식 청장은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조가 필요하므로, 우선 농림부는 가격 보조 등 행정적인 부분을 맡고, 기술지도는 농촌진흥청이, 고품질의 액비를 생산하

는 것은 양돈협회·조합 등의 농가가, 이를 경종 농가 등에게 유통하는 것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농협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농진청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증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11월 하순 최종 완료해 자연순환농업 연구단 구성 및 연구단장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부터 수행할 연구과제를 12월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농진청이 밝힌 산하기관별 추진계획**

■ 축산연구소는 '가축분뇨의 고효율 고품질 자원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이를위해 퇴·액비 품질 고급화 연구를 실시하고 고품질 퇴·액비 이용 기준을 설정후 안전성 확보 기술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으로 산업적 실용화 기술 개발 확립 및 현장 보급을 위해 축산농가 및 산업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농업과학기술원은 '가축분뇨 시용에 따른 토양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용 생물학적 지표를 선별하고 지표별 분석 방법 체계화와 환경요인별 지표성분 변동상 조사 평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환경부하 경감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신기술 개발도 착수한다.

또한 환경영향변화 장기예측이 가능한 기술 개발과 법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며 국제쟁점 대응자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작물과학원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작물시용효과 및 적정시용 방안'을 위해 논에서 가축분



뇨 이용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친환경 비배시 액비 투입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연구가 완성되면 작물별 가축분뇨 적정 활용기술과 액비 농도별 작부체계 기술도 개발하게 된다. 특히 작물별 가축분뇨 종합관리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농촌지원국 친환경기술과는 '자연순환농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 기술 지도'를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시비처방서 활용체계를 구축, 중앙단위 퇴액비 분석 및 농가교육 전문지도사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종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지도 강화와 농가형 광합성미생물을 배양을 연구하는 한편 지역별 퇴·액비 시범포를 농림부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농진청은 자연순환농업 연구개발은 단순한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연구과제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시 현장에 적용시키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양국**